

재즈를 듣다 24

자유부인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필자가 어릴 때에 TV 뉴스에서 무허가 댄스홀을 드나들던 유부녀가 속칭 ‘제비’의 함정에 빠져 가정이 파탄 난 사례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지적을 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55년에 ‘박인수 사건’이란 게 있었다.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한 사람이 70여 명 여성과 간통한 사건이다. 그가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간 곳은 카바레였고 특기는 사교춤이었다. 이듬해에 ‘자유부인’이란 영화가 개봉했다. 정비석 소설 원작으로 대학교수 부인이 카바레를 드나들다 불륜에 빠져 패가망신한다는 이야기다. 상당히 숙련된 빅밴드가 등장해 ‘체리 핑크와 애플 블로섬 화이트(= Cherry Pink and Apple Blossom White)’를 연주한다. 오늘날 카바레는 이른바 ‘뽕짝’이라 불리는 장르만 나온단 점에서 역설적으로 참신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트럼펫 솔로를 한 분은 박주근 씨다. 1909년 신의주 출신으로 하얼빈, 상하이, 홍콩 등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들어와 미8군 무대에도 섰던, 훗날 이른바 ‘재즈 1세대’라 일컬어진 분들보다 한세대 앞선 연주자다. 화려한 쇼와 더불어 지식인, 예술가 간 친목 장소이기도 했던 유럽 카바레와 달리 일본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변질된 카바레는 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다. 동시에 그곳은 한국의 재즈 연주자들이 생계를 위해 드나들던 일터이기도 했다. 초기 재즈가 뉴올리언스 홍등가에서 시작했음을 상기한다면 그나마 카바레는 상당히 건전한 축에 속한다.



자유부인 포스터, 1956



자유부인 QRCode



경성에 댄스홀을 허하라, 1937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엔 복혜숙이란 여배우께서 1937년에 ‘경성에 댄스홀을 허하라’는 제목의 공개 탄원서를 총독부에 제출한 일이 있었다. ‘문명 도시라면 어디에나 있는 댄스홀이 왜 경성에는 안 되는가?’란 내용이다. 이 문서에 함께 서명한 명단의 직업은 여배우, 기생, 술집 마담, 음반 업계 종사자 등이었다. 이들과 함께 (일본을 통해 전해진) 서양 문물을 전방위적으로 받아들인 계층을 가리켜 모던걸, 모던보이라고 했다. 조선 초보다 한층 낯대스러워진 조선말 유교 사회에서 과연 남녀가 밀착해 춤추는 댄스홀이 가당키나 한지 모를 일이다. 짐작건대 모던걸, 모던보이끼리의 폐쇄 문화가 아니었을까 싶다. 재즈 또한 이들을 통해 조선에 뿌리를 내렸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재즈’란 말은 지금과는 달랐다. 조선에 들어온 서양 유행가를 통틀어 장르 불문 재즈라고 했다. 그 흔적이 ‘트롯’에 남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원래는 빅밴드 재즈인 ‘폭스트롯(Fox Trot)’에서 왔지만 일본에 전해지며 엔카와 결합했고, 스윙 재즈 고유의 리듬을 ‘쿵 +

딱’이나 ‘뽕 + 짹’ 등으로 부르다 ‘뽕짹’으로 정착했을 것이다. 재즈와 뽕짹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 전혀 관계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사연이 있다. 그러니 뉴욕 ‘커튼클럽’에서 폭스트롯이 연주됐듯, 한국 카바레에서 뽕짹이 나오는 것도 나름의 유사성이 있긴 있다.

한국 최초 재즈 악단은 만석지기 아들로 태어나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백명곤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사비로 ‘조선축구단’을 창단했듯이 재즈 악단을 결성해 ‘코리아 재즈 밴드’라 명명하고 1928년 YMCA에서 첫 공연을 했다. 이때 피아노를 흥난파가 담당했다고 한다. 악기 구성은 초기 재즈의 구색을 갖추긴 했지만 녹음이 남아 있을 리 없는 상황에서 과연 ‘재즈’라고 할 수 있는 연주가 이뤄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무튼 당시엔 신문물이었던 만큼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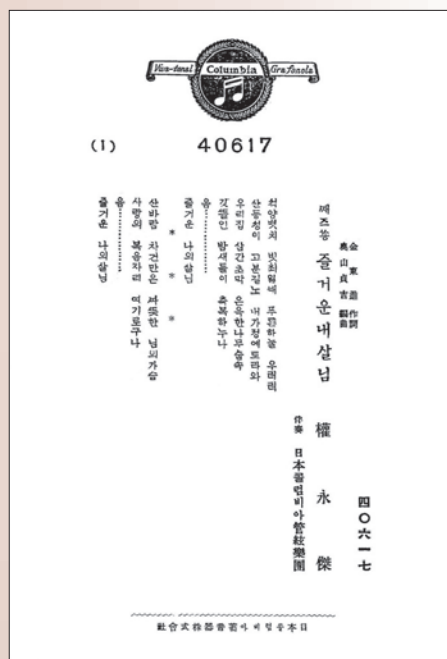
코리아 재즈 밴드, 1928

전국적인 유행기의 보급은 배우 겸 가수인 윤심덕이 ‘사의 찬미’란 노래를 취입한 후 애인과 함께 현해탄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는 소문을 타고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주로 유

통되던 음반은 판소리, 민요, 잡가 등이었겠으나 일부 재즈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1928년에 ‘폴 화이트맨 악단’ 음반이 출시됐다. 또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 가수 이난영은 1939년 ‘오케레코드’사를 통해 ‘다방의 푸른 꿈’이라는 블루스 냄새가 약간 나는 곡을 발표했다. ‘탄스홀’ 탄원서를 제출했던 복혜숙을 최초의 재즈 가수라는 평이 있긴 하나 당시 ‘재즈송’이라고 했던 ‘종로행진곡’, ‘그대 그림자’ 등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 들어보면 재즈라고 하기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진정 재즈 같아 보이는 음악은 대체로 외국곡인 경우가 많다. 1935년에 권영걸이 발표한 ‘즐거운 내 살림’은 진 오스틴(Gene Austin)이란 가수가 부른 ‘나의 푸른 하늘(= My Blue Heaven)’을 변안한 것으로 전형적인 폭스트롯 음악이다. 또 1939년에 손목인이 베니굿맨의 히트곡 ‘씽씽씽(Sing Sing Sing)’을 원곡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연주를 해내고 있다. 반면 한국인이 만든 곡 중에는 김해송이 작곡한 ‘청춘 계급’, ‘감격의 그 날’ 등을 들 수 있을 듯하다. 1939년 김능자가 부른 ‘그리운 그대’에는 “라릴라라 린다란다”와 같은 스캣과 함께 “당신만의 좋다면 재즈 맞춰 춤을 추리다”라는 가사가 나온다.



다방의 푸른꿈, 1939



즐거운 내 살림, 1935

[illegible]

손목인 싱싱싱, 1939



비 오는 날의 오후 3시, 1959

‘블루스(Blues)’도 ‘재즈’, 트롯’ 만큼이나 크게 오용된 용어다. 원래 이것은 12마디로 구성된 ‘블루노트’라고 하는 고유의 음계를 사용하는 흑인 음악의 뿌리와 같은 장르이지만, 한국에선 또다시 트롯과 결합해 ‘블루스 = 우울하다, 슬프다’는 의미만 가져와선, 발음마저 ‘블루스’ 아닌 ‘부르스’로 변질해 일제강점기 시절 ‘이별의 블루스’, ‘비의 부르스’, 이후 ‘무정 부르스’, ‘대전 부르스’, ‘애수의 부르스’ 등등으로 남용됐다. 앞서 언급한 ‘다방의 푸른꿈’이 그나마 블루노트를 사용했을 뿐 아마도 이외엔 없는 것 같다. ‘부르스’는 블루스와 무관하다.

진정 블루스와 재즈라 할만한 음악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 전쟁 이후, 전쟁의 상흔이 어느 정도 아문 1950년대 말경이라고 해야 할 듯하다. 1959년 개봉한 영화 ‘비 오는 날의 오후 3시’에서 손시향이 부른 주제곡은 여전히 재즈라고 하기엔 모호한 면이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와는 다른 현대적 감각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얘기한 한국 재즈는 모두 1930년대 빅밴드 영향을 받은 것들뿐이다. 을씨년스러운 일제강점기였음에도 다방면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걸 비춰보면 40년대에 새로 등장한 밥(Bop) 또한 조선 사람이라고 몰랐을 리 없었을 것 같은데 어쩌서 흔적을 찾기 어려울까? 짐작에 불과하긴 하나 우선 두 가지가 떠오른다. 첫째, 밥(Bop)은 (대중성이 떨어져) 돈이 안 되기 때문이고, 둘째, 50년대 한국은 전쟁 중이었다. 미국처럼 음반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주자가 생계를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TV 방송사 악단에 들어가거나 밤업소에 출연하는 것뿐이었던 것 같다. 특히 업소에선 대중적인 트롯만을 연주해야 했다. 사실 이전 미국 클럽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손님이 듣고 싶은 걸 연주하는 건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애프터 아워즈(After Hours)’라고 해서 일과가 끝난 후엔 연주자끼리 모여 각자 원하는 연주를 싣기 하는 관행이 있었던 반면, 한국 연주자들은 이런 소박한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듯하다. 이들이 업소에서 받아야 했던 수모담은 구전으로 전해져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다.



최세진 1집, 2007

1976년에 재즈 연주자들이 모여 한국재즈클럽(Korea Jazz Club), 줄여서 KJC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드러머 최세진을 중심으로 강태환, 길옥윤, 김수열, 김용세, 이판근, 정성조 등이 참여했다. 이분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통털어도 수십여 명에 불과할 듯한) 인맥이 사실상 ‘한국 밥(Bop) 1세대’라 불려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한다. 최세진은 2007년이 돼서야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라 명명한 1집 음반을 발표했다.

KJC 결성과 같은 해에 이태원동에서 ‘올댓재즈(All That Jazz)’라는 재즈 클럽이 등장했다. 설립자는 마명덕 씨라고 한다. 화교 출신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은 미국인인 복잡한 배경을 갖고 있다. 낮에는 재즈 음반을 틀고, 밤에는 매일 공연을 하던 곳이다. 1980년대까진 국내 카페에서 재즈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는데 올댓재즈를 가면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악이 나오곤 했다. 밤의 공연 역시 상당한 공력을 갖춘 연주자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미군을 상대로 영업했던 곳이다 보니 (물론 안전하긴 했지만) 이따금 술주정뱅이 백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시비를 거는 일도 있었다. 1994년 TV에서 방영한 ‘사랑을 그대 품 안에’란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상황이 급변해 그 뒤론 한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들었다. 현재 ‘올댓재즈’는 원래 있던 곳에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영업 중이다.

1978년 신촌에서 처음 문을 연 ‘야누스’는 재즈 보컬리스트 박성연 씨가 만든 재즈 클럽이다. KJC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이었다. 1990년대에 국내에 불었던 재즈 유행에 힘입어 반짝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영난을 겪었다. 대학로, 청담동, 서초동을 전전하며 꺼질듯 꺼질듯 명맥을 이어갔다. 박성연 씨는 2020년 8월에 질병으로 별세했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현재는 가수 딸로 씨가 클럽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1985년에 ‘박성연과 재즈 옛 더 야누스 Vol.1’란 음반을 발표했다. 하지만 Vol.2는 나오지 않았다.



박성연, 야누스



올댓재즈, 이태원



야누스 재즈 클럽



박성연과 재즈 옛 더 야누스 Vol.1, 1985



브라보! 재즈라이프 콘서트, 2010



김대환, 흑우

‘공간사랑’은 건축가 김수근이 종로구 원서동에 지은 ‘공간’ 사옥 지하에 마련한 소극장이다. 김덕수, 김용배가 함께 만든 ‘사물놀이’를 비롯, 공옥진, 홍신자, 이태방 등등이 공연을 해 온갖 전설이 남아 있다. 재즈와 관련해선 이곳에서 한국의 프리재즈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강태환(= 색소폰), 김대환(= 타악기), 최선배(= 트럼펫)의 3인이 십여 년간 이곳에서 프리재즈 공연을 했다. 현재는 최재천-미연 부부이자 듀오가 명맥을 잇고 있다.

2010년에 ‘브라보! 재즈 라이프’라는 다큐멘터리가 개봉했다. 이제 노년이 된 KJC 멤버의 이야기를 다뤘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분들이 아직 정정하실 때 이런 다큐를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박수를 보낸다. 각자 평생을 재즈에 투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삶은 냉정히 말하면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무명의 삶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런 ‘변방’이 좋다. 역사에는 한 분야 또는 시대에서 큰 획을 그은 인물만이 기록되지만, 그 아래엔 이런 수많은 변방의 기억이 쌓여있다. 이것이 밑을 받쳐주기에 높이 봉우리가 솟을 수 있다. 그것이 보통 사람의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 기억)이 좋아야 한다. 좋은 기억은 시시각각 변하는 희로애락과 무관하게 매 순간을 즐긴 사람과 함께 한다. 🎷